

[보도자료] 쿠팡, ‘로켓직구 유럽’ 스토어 오픈 유럽 인기 브랜드 한자리에

2026. 10. 2.



- 10월 1일 ‘로켓직구 유럽’ 스토어 그랜드 오픈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유럽 대표 브랜드 80개 총출동
- 7일까지 론칭 기념 ‘글로벌 쇼핑데이’ 진행 4만여 개 상품 선보

2026. 10. 02. 서울 - 쿠팡이 성장하는 유럽 직구 수요에 발맞춰 로켓직구 서비스를 유럽까지 확대한다.

쿠팡은 10월 1일 ‘로켓직구 유럽’ 스토어를 공식 론칭하고 건강식품, 식품, 뷰티, 유아용품 등 유럽 인기 브랜드 상품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유럽은 오랜 역사와 차별화된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다수 배출해온 시장이다. 쿠팡은 건강식품,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브랜드를 찾는 고객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유럽 스토어를 선보이게 됐다.

유럽 스토어에는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의 인기 브랜드 80개, 380여 개 상품이 입점한다. 주요 입점 브랜드 가운데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온 곳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프리미엄 유기농 유아식 브랜드인 독일 ‘힉(HiPP)’이 있다. 120여 년 전 독일의 한 제빵사가 쌍둥이 자녀를 위해 개발한 유아식에서 출발한 힉은 유기농 생산 원칙과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분유와 이유식, 간식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스위스 135년 전통의 더모 헤어케어 브랜드 ‘라우쉬(Rausch)’는 세계 최초의 액체 샴푸를 선보인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허브 기반 제품 개발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제품을 스위스에서 생산하며 자체 허브 추출 기술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130여 년간 축적한 허브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더모 헤어케어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탈리아 프리미엄 발사믹 식초 브랜드 ‘고체(Gocce)’는 발사믹 식초의 대표 산지인 이탈리아 모데나(Modena) 지역의 전통을 담고 있다. 1871년부터 5대째 발사믹 식초를 생산해온 레오나르디 가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했으며, 전통적인 제조법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독일 프리미엄 영양제 ‘오쏘몰(Orthomol)’, 이탈리아 퍼스널케어 ‘보로탈코(Borotalco)’, 이탈리아 커피 ‘체리코(Cherico)’ 등 다양한 유럽 브랜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쿠팡은 유럽 스토어 론칭을 기념해 10월 한 달간 유럽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팡은 지난 2017년 미국 대상 로켓직구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홍콩, 일본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왔다. 이번 유럽 스토어 론칭을 통해 고객들은 유럽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와우회원은 무제한 무료배송 혜택과 함께 주문 후 3~5일 이내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오는 7일까지 ‘글로벌 쇼핑데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매월 1일 개최하는 글로벌 쇼핑데이는 인기 직구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으로, 이번에는 유럽 상품을 포함해 가전디지털, 패션, 건강식품, 푸드, 홈·키친, 캠핑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글로벌 브랜드 상품 4만여 개를 마련했다.

대표 상품으로 이번에 입점한 △고체 이탈리아 콘디멘토 화이트 발사믹 식초 △오쏘몰 이문 △라우쉬 샴푸 등이 있다. 미국 인기 직구 상품인 △도브 센서티브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뷰티 바 △재로우 우먼 펌-도필러스와 일본의 △닛신 돈베이 키초네 우동 △센카 퍼펙트 힐 페이스 워시 등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샤즈 오픈 런 프로 2 이어폰 △제니베이커리 쿠키 △바샤커피 밀라노 모닝 커피 기프트박스 등 홍콩·중국 인기 직구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건강식품,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브랜드를 찾는 고객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전 세계 인기 상품을 더욱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 경쟁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